

## 언약의 사람 (열왕기하 3:20-27)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언약의 사람이다. 복음은 과거의 문제 해결이다. 과거에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이나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복음을 누림으로 응답을 받으면 과거의 모든 상처가 회복이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처가 미래의 발판이 된다. 복음의 권세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미래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원죄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답이다. 반드시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미래를 우리는 정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운명을 뒤집는다고 말한다. 원죄가 운명이다. 아무도 못 바꾼다. 그 뒤에 있는 사단이 운명이다.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뒤집는다. 당연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온다. 아무도 못 막는다. 사단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십자가 죽음을 누가 막겠는가? 이것을 잡는 사람은 무조건 승리하고 정복한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답은 영원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갱신 하나 뿐이다. 계속 생각을 갱신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이 하나님과 같고 목표와 이유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갈등이 사라진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된다. 생각이 같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생각이 기도요, 24시이다. 그 위에 만일 기도 24가 되면 더 큰 응답을 받을 것이다.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24 시스템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24기도의 바탕이 된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24가 되겠는가. 깊이 누리고 회복해서 새해에는 정말 내 인생 살리기 바란다. 그러면 이웃의 인생도 우리가 살리게 된다.

### 1. 언약의 사람

오늘 본문은 3장 전체를 읽으면 알 수 있다. 모압자손이 이스라엘에게 배반을 했다. 모압은 롯의 자손이다. 그래서 롯은 사실은 완전히 망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다. 유다왕은 여호사밧이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우상숭배하는 아합과는 사돈관계였다.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전쟁에 에돔 왕이 함께 함류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다. 읽어보면 전쟁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일으켰다. 이유는 왕하 3장 4절에 써놨다. 모압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조공을 안 바쳐서 이스라엘 왕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전쟁을 하자고 한 것이다. 여기에 에돔 왕이 함류를 했다. 그래서 세 왕이 간다. 그런데 3장 9절에 보면 이 세왕이 가는데 길을 간지 7일만에 군사와 가축이 먹을 물이 없어진 것이다.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혹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볼 선지자가 없는지 찾았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엘리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세 왕을 보고, 왜 당신들의 선지자에게 가지 왜 나에게 왔냐고 물었다. 그리고 우상숭배한 자들에게도 자기들 선지자가 있으니까, 당신들 선지자에게 가지 왜 나에게 왔냐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사정을 한 것이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14절에, 유다왕 여호사밧 아니면 당신을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다면 말씀 전해줬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와의 말씀에,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그 골짜기에서 가축과 사람들이 먹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18절에 이것은 여호와와 보기에 작은 일이고 모압 사람들도 당신들에게 넘길 것이라는 예언을 준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좋은 성읍도 다 정복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아침에 소제를 드릴때에 물이 에돔쪽에서 흘러와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늘 본문에는 전쟁을 하는 적군인 모압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피로 보인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이것을 피로 착각하고 이 왕들이 서로 싸워서 죽인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가서 노략하러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죽게 된 것이다. 그 이후

에 그 나라로 쳐들어가서 정복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전쟁의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언약을 가진 여호사밧 때문에 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어부지리로 복을 얻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은 영적인 책임인데, 이것을 기록하였다. 그러면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너도 여호사밧처럼 언약의 사람이 되어라. 너가 만일 언약의 사람이 되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말씀을 주고 너때 문에 전쟁에 이기게 한다는 것이다. 전쟁은 인간 모든 역사의 터닝포인트이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 언약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이다. 기적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이 중심에 언약의 사람이 있었다. 나는 너를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너가 역사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주체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아무 관계 없고 여호사밧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이 언약의 사람 때문에 복 받는 것이다. 언약의 사람 옆에 있으면 평생은 아니어도 한번은 복 받는다. 가족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 있으면 그 가족은 구원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중심으로 일하신다. 이스라엘 왕은 우상을 숭배했지만 언약의 사람 여호사밧 때문에 복 받았다. 문제 해결하고 정복의 축복을 받았다. 가족중에 혹 언약한 자가 있을 거이다. 신경쓰지 말고 내가 언약 잡으면 나 중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이라고 하는 것이다. 원죄가 없으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는가? 원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사단에 대한 감각이 없거나 원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이 언약을 잘 못 잡게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구원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이다.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인생에 안 나타난다. 정복하는 믿음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인생 되어야 한다.

이 전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북쪽은 우상을 숭배하고 남쪽 유다는 확실히 언약이었다. 언약이 문제 해결의 답이라는 것이다. 언약이 기적의 이유라는 것이다. 언약은 대적이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사단이. 멀쩡한 물을 왜 피로 보겠는가? 하나님이 착각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다. 언약을 경시하면 안된다. 모든 것이고 여기서 다 끝나야 한다. 시작이고 끝이다. 다른 것은 없다.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이다.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망대의 여정, 이정표라는 이야기 많이 듣는다. 어떻게 이 언약을 누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망대이다. 이 언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여정이다. 이 언약이 우리 인생중에 어떤 시간표를 통해 성취될 것인가? 그것이 이정표이다. 성경에 이정표 써놨다.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되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나의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다. 이 이정표 못 벗어난다. 아직 우리는 로마 안 갔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우리가 어디쯤 와 있겠는가? 금방 보인다. 다른데로 못 간다. 자기것을 포기한 사람이 응답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약에 올인하게 되어있다.

### 2. 역사의 주인공

여호사밧왕은 이스라엘 역사의 몇 안되는 중요한 언약 가진 왕이었다. 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역대상 17-21장에 나온다. 그 기록을 보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써 놨다. 왜 그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있었는가 써있다. 우리가 내 인생 살아가는 기간동안에는 내 인생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미국, 남미, 다민족이다. 여기에 주인공 되어야 한다. 17장부터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깨버렸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게 아니라 방백들과 레위인들을 유다 전역에 보내서 율법책을 가르쳤다. 말씀운동을 한 것이다. 이런 왕은 없었다. 다윗도 그렇게 안 했다. 죽을 때까지 말씀운동 해야 한다. 말씀이 임했는데, 오늘도 엘리사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대적이 착각을 해서 죽음앞에 나오는 것이

다. 말씀대로 했는데,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었다. 이런 전쟁은 없었다. 중대한 메시지이다. 마지막 날에. 그리고 그렇게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다. 매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아주 강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고 기록해냈다. 블레셋 사람이 조공을 바쳤다. 은으로. 아라비아 사람들은 숫양, 숫염소 7천 7백마리를 마쳤다고 써냈다. 유다에는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국고성은 나라의 재산을 보관하는 창고였다. 돈이 많으니까. 연약 잡으면 경제 회복되는 것이다. 용맹스러운 군사도 많이 일어났는데, 유다족속에 30만명, 여호사밧 앞에 18만명, 아말기아라는 사람 아래에 20만명, 엘리아가 아래에 궁수 20만명, 여호사밧 아래 18만명, 총 합하니까 98만명, 거의 100만명 군대가 일어났다. 강원도 만한 나라에 100만명의 군대가 있는 것이다. 요즘 여성들은 아이도 많이 안 낳는데, 이 때에는 아이도 많이 낳은 것 같다. 여자의 1번 사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 인구 떨어지면 그 나라는 죽는다. 아이 많이 낳는 것도 축복이다. 강원도 만한 나라에 군인이 100만이다. 여호사밧은 에브라임 산지, 북이스라엘 땅인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자기 조상에게 돌아오게 하였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아주 정확하게 백성의 문제를 판단했다. 이러던 중에 세 민족이 합하여 쳐들어왔다. 거기에 보면 모압과 압몬, 룯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마흔 사람, 이들은 예서의 족속들이다. 전쟁을 하러왔다. 여호사밧은 이 때에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했다. 역대하 20장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 아내, 자녀 모두 할 것 없이 여호와 앞에 섰다. 아이들도 상관없이 다 나왔다. 이 때 한 레위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더니 그 말씀 그대로 했는데, 전쟁 쳐들어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다. 핵심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운 것이다. 찬양하면서 나갔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군대가 총을 들고 가야 하는데, 찬양대를 앞세웠다. 그랬더니 먼저는 모압과 암몬이 합해서 예서 족속을 다 죽였다. 죽이고 나서 자기들끼리 또 싸워서 다 죽인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런 전쟁은 없었다. 세계 전쟁사에도. 싸우러 온 사람들이 왜 자기끼리 죽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약속의 피이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냐는 것이다. 역대하 20장 25절에,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가져갈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사흘동안이나 거두어 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겠는가?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사밧을 선두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하 20장 29절에는 이방 모든 나라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이다. 소문이 다 퍼진 것이다. 싸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싸워 이겼다는 것이다. 이런 전쟁은 어디에도 없었다. 왜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는가? 왜 물을 보고 피로 착각을 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말이다. 너가 이것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것 말고 무엇으로 살려고 하냐는 것이다. 세상은 도무지 상상도 할수 없는 기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이다. 여호사밧 왕은 당연히 당시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다른 나라는 겁나서 못 쳐들어오는 것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답은 간단하다 언약을 행하라는 것이다. 그 지역 역사의 기준이 여호사밧이었다. 이것이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믿는데, 믿음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이다. 행하라는 것이다. 이상만 깨지 말고 말씀 운동을 전국에 펼치라는 것이다. 매일 나에게 말씀운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답이다. 어느날 발견되어지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주시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오라는 것이다. 말씀이 임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엘리아 말대로 개천을 팠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전쟁도 말씀대로 된 것이다. 레위인이 받은 말씀대로 찬양대가 앞서 가는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 세계에도 없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런 언약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다. 옛날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지금 보면 헤매고 방황했던 것이다. 답이 없으니 그저 기도하고 울고 방황했던 것이다. 지금도 어쩌면

비슷할 것이다. 틀린 것은 아니다.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뭐가? 거기에 머물르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 선을 넘어설수 있는데. 기적의 언약으로 이 죄도 깨라는 것이다. 밖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안 질려고 노력한다. 귀한 일이다. 문제는 그것이 답이 아니다. 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것을 누려서 죄를 깨야 한다. 죄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깨야 한다. 이렇게 안 살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한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죄를 관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깨지 않으면 답이 안난다. 오늘 우리가 나눈 전쟁의 이야기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 붙들고 증인되어야 한다. 뱀의 머리를 깬 완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이다.

이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남미, 237, 5천 종족 운동 하실 것이다. 준비 다 되어 있다. 제자들. 우리가 함께 도와줘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놀라운 일이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남미, 237, 5천 종족.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언약을 향해 살면 누구든지 이 놀라운 축복 받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 대하 20:33절에 보면 모든 우상은 깎지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래 예배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해야 한다.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거기 하나 뿐이다. 그 때부터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산 높운데에 단 같은거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한 것이다. 혹 하나님을 불러도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이것들도 다 깨버렸다. 이것까지 다 깬 왕은 히스기야 하나 뿐이었을 것이다. 여호사밧은 그것까지는 안 깬 것이다. 또 하나 부족한 것은 선지자도 여호사밧왕에게 지적했다. 대하 19:1-3절에 보면 아합왕하고 사돈이 된 것이다. 희대의 우상숭배하는 왕하고 사돈이 되어서 도와주고,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선지자가 말했다. 그러나 그가 언약 안에 있었으므로 기적을 주시고 도와주셨다. 우리도 언약을 잡았지만 부족한 것 많이 있다. 넘어진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관찮다고 하시는 것이다.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면 그렇다. 위로가 된다. 여호사밧도 부족한 것 있었다. 아합왕을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래도 그는 언약으로 살았기 때문에, 언약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면 여호사밧과 같은 축복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룯은 믿었다. 그러나 행하지 않았다. 다 망했다. 우리도 언약 잡고 다 행하면 여호사밧같은 축복을 받을수 있다는 말이다. 중요한 메시지로 받았다. 나도 언약한 것, 부족한 것, 많다. 그러나 하나 감사한 것은 생명 걸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무조건 언약이다. 이거 하나 가지고 사는 것이다. 감사하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완전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이다. 대하 21:5-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죽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 냈다. 그의 이름도 여호람이다. 이스라엘 왕이랑 같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다른 왕들처럼 우상숭배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도 써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웬일인지, 아합과 사돈이 되는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가지고 결혼 잘해야 된다 그런 말 나오겠지만, 그것은 언약적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여호람이 언약 잡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와 동일한 응답을 받는 것이다. 아버지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 왜 아내를 찾아가겠는가? 그것은 자기 잘못이지 아내 잘못이 아니다. 이것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밀이다. 언약을 지키면 복음이 천대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우리도 언약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면 여호사밧과 같은 축복을 받는다. 인생이 그런 인생이 없다. 오늘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설명한 본문을 만났다. 마음에 다시 한번 언약이 되고 매일 행하는 것은 쉽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 것이다. 이유가 뭐든 안하면 안한 것이다. 잘하든 못하든 하면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불신자 뿐 아니라 신자에게는 이 말이 상급에 해당되는 말이다. 하시기 바란다. 언약을 해야 한다. 믿는 것은 감사하고 은혜지만 하면 이런 전쟁이 우리 인생중에 나타난다.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